

국토교통부, AI·스마트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 추진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국토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- 국토교통부는 교통·환경·안전 등 도시 문제를 AI와 스마트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'2026년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'을 추진하고 스마트도시 확산을 지원
 -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도시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거점형·특화단지·강소형 등 3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
 - 거점형 스마트도시, 스마트도시 특화단지, 강소형 스마트도시 등 유형별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 지역을 선정
 - 최대 6곳 이내를 선정해 3년간 국비를 최대 560억 원까지 지원하며,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으로 스마트도시 구축과 서비스를 확산
 - 사업 공모와 함께 성과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·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높여 사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
 - 거점형과 특화단지는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, 강소형은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원 대상 결정
 - 사업 초기부터 성과물의 지속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, 참여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 검증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
- 거점형·특화단지·강소형 등 3개 유형을 통해 도시 규모와 정책 목표에 맞는 스마트도시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, 각 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 추진
 - 거점형과 특화단지는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의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며,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운영
 - 거점형은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조성하고,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를 창출
 - 특화단지는 기업이 신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실증공간을 제공하고,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
 - 강소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지원
 - 기후위기 대응형, 지역소멸 대응형, 모빌리티 특화형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
 -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하고, 주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(2026.03.13),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·지원, 스마트시티 종합포털